# 몸을 위한 생명의 체험과 성장과 사역

(금요일-오전 1부 집회)

메시지 1

#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활함

성경: 요일 1:2-7, 9

## I.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 A. 교통은 신성한 생명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모든 믿는 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수의 강의 흐름으로 묘사되다 — 계 22:1.
- B.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 6절과 7절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에는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 두 가지가 있음을 계시한다.
  - 1.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은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 a.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은 우리와 삼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리키며,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은 우리 믿는 이들 서로 간의 교통을 가리킨다.
    - b. 사도들의 체험은 처음에는 수직적이었지만, 사도들이 신성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을 체험하게 되었다.
  - 2. 요한일서 1장 6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이다.
  - 3.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라고 말한다. 이것은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이다.
- C. 우리는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 1. 우리가 주님과 합당한 교통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동료 믿는 이들과 교통을 갖기가 어렵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동료 믿는 이들과 합당한 교통을 갖지 못한다면 주님과 교통을 갖기가 어렵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신성한 교통은 한 교통이기 때문이다 행 2:42.
  - 2. 우리가 실지적으로 이 교통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영 밖에, 삼일 하나님 밖에, 신 성한 생명 밖에 있는 것이다 — 비교 고후 13:14, 고전 1:9, 빌 2:1.
  - 3. 우리는 가능한 많이 우리의 동료 믿는 이들과 교통을 가지려고 해야 한다. 이러한 신성 한 교통은 우리를 교정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빚어주고 심지어 우리를 재조성한다. 이러한 교통은 신성한 조성성분을 우리의 영적 존재 안으로 가져와 우리 존재 안에 변화를 일으킨다.
  - 4. 교통은 또한 개인적인 이익을 버리고 어떤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신성한 교통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제쳐 놓고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삼일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다 — 행 2:42, 요일 1:3, 고전 1:9, 3:6, 12.

- D.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의 실재이다.
  - 1. 주님께서 아직 다시 오지 않으신 이유는(계 22:20) 믿는 이들이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이며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신성한 교통 안에 제한받는 것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 안에 보존되고 사역의 일은 계속 전진하게 된다. 모든 것을 살아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통이다 엡 4:11-12, 비교 겔 47:9.
- E. 생명의 교통, 곧 생명의 내적인 흐름은 기쁨을 가져오고, 또한 생명의 빛의 내적인 비춤, 곧 내적인 다스림을 가져온다 요일 1:4-5, 요 1:4, 8:12, 비교 고후 5:13.

## II. 우리는 두 영에 의해 신성한 교통의 두 방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 A. 우리는 신성한 영, 곧 성령에 의해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고후 13:14. 딤후 4:22.
  - 1. 그 영 자신이 교통이신데, 이것은 교통이 그 영의 흐름,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류가 다만 전기 자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전류는 움직이는 전기이다.
  - 2.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언급된 성령의 교통은 움직이시는 그 영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 자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맛본 하나님 자신이며, 그 영의 교통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 영 자신이다.
- B. 우리는 사람의 영에 의해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빌 2:1, 계 1:10.

  - 2.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면 결코 세상적인 방식으로 말하거나, 성도들이나 교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실패에 관해 험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우리의 대화의 본성이 바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영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고후 6:6.
- C. 수평적인 교통은 수직적인 교통과 함께 짜인다. 이렇게 함께 짜인 교통이 참된 교통이다.
  - 1.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진정으로 서로 교통할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주 님을 접촉하게 된다. 이것은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이 서로 얼마나 긴밀히 연관되는지를 보여 준다.
  - 2. 우리가 성도들과 갖는 수평적인 교통은 우리를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통 안으로 이끌어 준다. 그다음 우리가 주님과 갖는 수직적인 교통은 우리를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통 안으로 이끌어 준다.
- D.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모든 것이다.
  - 1. 전류가 전기 자체이듯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 곧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신성한 생명 자체이다.
  - 2.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의 생활이다.
  - 3. 사도들은 믿는 이들과 교통하기를 원했는데, 이것은 수평적인 교통이다. 그런 다음 사도

들은 그들의 교통이 삼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수직적인 교통이다.

- 4. 우리는 수직적으로 주님과 계속 교통해야 하며, 동시에 수평적으로 서로와 계속 교통해야 한다.
- 5. 결국 이러한 신성한 교통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짜이신다. 이렇게 함께 짜이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 6. 우리는 교통이 사라질 때 하나님도 사라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교통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

## III. 우리의 교통은 십자가를 통해 깊어진다.

- A.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는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이다.
- B. 영한동번찬송가 737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533장) 6절은 이렇게 말한다. "십자가로 인해 교통 깊어져 성령의 숨으로 교통 높아져". 그 영과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참된 교통을 가 질 수 없다.
- C. 영한동번찬송가 279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227장)의 첫 행은 "먼저 피로 씻은 후에 관유로 적셔지네"라고 말한다.
  - 1. 피는 십자가의 확실한 표징이고, 관유는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되신 영의 예표이다.
  - 2. 이 두 가지 요소는 레위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와 14절부터 18절까지에 언급된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더러운 죄인을 상징하는 나병 환자가 먼저는 피에 의해 정결하게 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 그 피의 기반 위에 기름, 곧 관유가 발라진다는 것을 본다.
    - a. 피와 관유는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진다. 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상징하고, 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는 것을 상징하며, 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취하는 것을 상징하다.
    - b. 영적으로 말해서, 나병은 잘못 듣는 것과 잘못 일하는 것과 잘못 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하고, 그런 다음 그 피에 근거하여 바르는 기름이 필요하다.
    - c.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하게 하는 피에 근거한 그 영의 신성한 교통에 의해 정결하게 된다.
- D. 신성한 교통은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인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으로서, 우리 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어 준다. 교통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공동 참여'를 의미하고, 이러 한 공동 참여는 하나를 산출한다.
  - 1. 사실상 교통은 바로 하나(oneness)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을 나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고 있을 때에, 이러한 교통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
  - 2. 온 우주 안에는 큰 하나가 있는데, 이 큰 하나가 신성한 교통이다.
  - 3.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시듯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기를 갈망하신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22하절)라고 기도하셨다. 교회의 하나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하나의 일부이다 (21상절).
  - 4. 결국 교회와 신성한 삼일성은 교통 안에서 하나이다 요 14:21, 23.

- E. 우리가 철저히 신성한 교통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체험해야 한다.
  - 1. 우리 안에는 다른 형제를 향해 어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그 형제의 교통은 그다지 철저하지 못하다. 우리 안에 신성한 교통의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성도들을 만나기를 피할 수도 있다.
  - 2. 우리의 체험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교통은 철저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는 장애물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갈 2:20상.
  - 3. 영한동번찬송가 631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464장)은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네"라고 말한다. 이것은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도 없네"를 의미하며,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는 성령이 없네, 성령이 없이는 교통이 없네"를 의미한다.
  - 4.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을 십자가로 끝내도록,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십자가의 특별한 몫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5. 사실상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항상 자아에게 그리 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 6. 우리가 수평적인 교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무감각한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 우리는 결코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다.
  - 7. 우리는 신성한 교통에 대한 체험을 깊어지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체험해야 한다 비교 요일 1:9.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성령에 의한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

신성한 교통에는 두 가지 면,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방면과 믿는 이들 사이의 수평적인 방면이 있다. 먼저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은 사람의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면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은 신성한 영, 즉 성령(고후 13:14, 딤후 4:22)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실 '의해'라는 단어로는 우리가 뜻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다. 교통에 있어서 그 영은 단지 참여하시거나 연합되시는 것만이 아니다. 사실 그 영께서 교통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통은 그 영의 흐름, 그 영의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류가 전기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전류는 움직이고 있는 전기라고 할 수 있다. 전기가 멈추면 전류도 멈춘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언급된 성령의 교통도 움직이시는 그 영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 자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맛본 하나님 자신이며, 마찬가지로 그 영의 교통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 영 자신이다. 신성한 교통이 성령 자체인 것이다.

신성한 영이 없다면 교통도 없다. 그 영이 교통의 요소 자체이시다. 나무로 탁자를 만들면 나무가 탁자의 요소가 된다. 마찬가지로 쇠로 탁자를 만들면 쇠가 탁자의 요소이다. 탁자에서 요소를 제거해 버린다면 탁자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신성한 교통도 마찬가지이다. 그 영을 제거해 버 린다면 신성한 교통도 사라진다.

## 사람의 영에 의한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

우리는 사람의 영에 의해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빌 2:1, 계 1:10). 우리가 서로 진정한 수평적인 교통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한다.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우리는 결코 세상적인 방식으로 말하거나 성도나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지방의 성도들이 다른 성도나 다른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그지방 교회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다. 이러한 말은 성도들 사이에 소문과 죽음을 퍼뜨린다. 성도들간의 이런 대화는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영의 교통이 아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영의 어떤 교통이나, 어떤 애정과 동정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바울은 마치 "형제들이여, 나와 영안에서 교통을 한다면 여러분의 교통은 나에게 권면과 위로가 될 것이요, 여러분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듯하다.

진정한 교통은 우리의 영에 의한 것이다.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오락에 대해 말할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영이 거룩하므로 영을 훈련할 때 대화의 본성이 바뀐다(비교 고후 6:6). 어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 단지 이야기만 나누고자 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기도하도록 우리를 밀어낼 것이다. 우리의 영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 떠들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수평적인 교통의 실재를 갖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신성한 교통을 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영, 즉 성령과 사람의 영 안에 있어야한다. 결국 이 두 영은 하나가 된다(롬 8:16, 고전 6:17). 로마서 8장 4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영을따라 행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연합된 영, 즉 사람의 영과 연합된 신성한 영을 따르라는 말이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신성한 교통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별되고 구출되며 구원받을 것이다. 승리하고 이기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신성한 교통을 해야 한다.

####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이 함께 짜이는 교통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은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으로 알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 교통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성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한담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게 된다. 우리의 기도의 영이 한담 때문에 소멸되었기때문이다. 반면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진정한 교통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지고주님을 접촉하고 싶어진다. 이것을 통해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수평적인 교통은 우리를 수직적인 교통으로 이끈다. 두 형제가 영을 훈련하여 참되고 합당하게 수평적으로 교통할 때 이들은 결국 매우 솔직하고 진실한 중보 기도를 하도록 이끌릴 것이다. 이들이 함께 기도할 때 신성한 교통의 두 방면이 함께 짜인다. 수평적인 교통이 수직적인 교통과 함께 짜이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짜이는 교통이

참된 교통이다.

교통은 다만 한 방면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수평적인 교통 없이 수직적인 교통만 할 수 없다. 만약 수직적인 교통 안에서 주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성도들을 만나 교통하고 싶어질 것이다. 성도들과 기도하며 교통할 때 당신은 다시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통 안으로 이끌린다. 당신과 성도들 사이의 수평적인 교통을 통해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통 안으로 이끌리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루어지는 주님과 당신 사이의 교통을 통해 당신은 다시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통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방면은 항상 함께 짜인다. 이들은 항상 함께 격자로 짜이는 것이다.

우리가 신성한 교통의 이러한 두 방면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다른 성도들과 교통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주님께 감사할 것이다. 매일 주님과 교통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통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 이런 교통을 더 많이 할수록 우리는 함께 주님을 더욱 찬미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신성한 교통을 충분히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안에 찬양과 찬미가 많지 않은 것이다.

##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것임

전류가 전기 자체이듯 신성한 생명의 교통, 즉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신성한 생명 그 자체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기용품들은 '전기의 생활', 즉 전류의 생활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신성한 생명의 교통의 생활이다. 신약은 그리스도인의 집회,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 그리스도인의 일이 모두 신성한 교통이라고 계시한다. 신성한 교통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도들의 교통에 이끌려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렀다(42절). 신약의 후반부에서 신성한 교통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교통(요일 1:3), 혹은 성령의 교통(고후 13:14), 영의 교통(별 2:1)이라고 불린다.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신성한 교통에 대해 말한다.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은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사도들은 성도들과 교통하기를 원했다. 이것은 수평적인 교통이다. 그다음에 사도들은 그들의 교통이 삼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수직적인 교통이다. 수직적인 교통은 우리를 수평적인 교통으로 이끈다. 그러면 수평적인 교통은 우리를 더욱 확대된 수직적인 교통 안으로 이끈다. 이러한 확대된 교통이 집회이다.

오늘날 우리는 집회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새 길,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강조한다. 우리는 새 길을 실행할 경우 집회가 지금과 다를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새 길에 따라 집회를 한다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충만하고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에서 신성한 교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집회 자체가 하나의 교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집회는 그렇지 못하다. 지금의 집회는 합당한 집회에 대해 우리가 본 이상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

집회에서 발휘되는 모든 기능은 신성한 교통이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신언도 이 교통의 표현이고, 간증도 이 교통의 일부이다. 주님의 상에서 성경 구절을 성도들에게 읽어 주는 것도 이 교통의 작은

일부이다. 집회 전체가 교통이어야 한다. 우리는 수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동시에 수평적으로 서로 교통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신성한 교통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짜이신다. 이렇게 함께 짜이는 것이 하나님 과 사람의 연합이다. 모든 집회는 수직적인 교통과 수평적인 교통이 함께 짜이는 것이어야 한다. 결혼 생활 역시 교통이 함께 짜이는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짜일 뿐 아니라 주님과 도 함께 짜여야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신성한 교통이어야 한다. 우리의 동역과 함께 봉사하는 것도 신성한 교통이어야 한다.

우리는 교통이 사라질 때 하나님도 사라지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교통으로서 오신다. 오늘날의 집회와 결혼 생활, 동역자들 사이의 동역, 지방 교회들 간의 교통은 비정상적이다. 교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방 교회들 사이에는 교통이 충분하지 못하고 교회들은 이교통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다.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교통 안에 살았다. 우리가 신성한 교통 안에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매우 살아 있고 활력적이며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두 영에 의한 신성한 교통의 두 방면에 대한 체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 242-250쪽)